

공직선거 후보 여성 30% 할당 의무 추진

김상곤 위원장 6차 혁신안서 새정치 정체성 제시

당선권 비례대표 3분의 1 복지전문가·활동가로

진보·보수 모두 겨냥한 '민생 복지정당' 표방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민생 제일주의'를 당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공직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좌우 노선 투쟁에 대한 논란을 접고 민생에 올인 한다는 것으로 진보와 보수를 모두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방향 제시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는 혁신위의 정체성 확립 방안을 놓고 진노와 비노 진영의 충돌을 예상했으나 좌우 노선이 아닌 민생으로 정체성 방향을 잡음에 따라 내용을 비껴가게 됐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

표한 6차 혁신안에서 "새정치연합은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나 우클릭이나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계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 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구축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천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증세 문제와 관련, 각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먼저 인상한 뒤 법인·소득세율 인상 등 '부자갑세' 철폐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또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시 여성 30% 공천을 의무사항으로 입법화하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토록 했다.

아울러 총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작농·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를 공천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위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새정치연합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노인 인구의 10% 이상을 공공형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혁신위는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 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의장을 맡고 당 내외 인사 7인씩이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토록 했다.

이어 당직 20% 이상을 민생 및 복지를 담당토록 재편하고 최고위원회 1명과 민주정책연구원 상근부원장 1명을 각각 민생 담당으로 지정토록 했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우리 사회 대립구도가 1세대가 민주 대 반(反) 민주, 2세대가 진보 대 보수였다면 지금 3세대는 '민생 대 반(反) 민생'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포용정치' 김무성

위싱턴 동포간담회 '박정희·김대중 공 평가해야'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한국시간) "김구 선생을 존경하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맞다. 모든 사람은 공과 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위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현지 동포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좌파들의 주장대로 사회주의를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승만을 우리의 국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전 주석이 '건국의 아버지' 마오쩌둥(毛澤東) 초대 주석을 '공(功) 7, 과(過) 3의 크기'로 인정한 사실을 언급, "우리는 크게 실수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후순에 게 부정의 역사, 마이너스 역사를 남겨



선 안 된다"며 "이승만 대통령을 망망히 있어야 하는 자리에 둘러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박정희·김대중 대통령도 과보다는 공을 훨씬 평가해야 한다. 그래야 통합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 5천년 민족 역사의 최고의 중흥기"라면서도 "진보 좌파의 준동으로 대한민국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 된다"고 말했다. 또 "우리 새누리당은 (진보좌파가) 준동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걸 공고히 하는 방법이 새누리당이 선거에 이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이 28일 국회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연정치' 천정배

내달까지 전국 순회... '전국세력화' 큰 관심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아권 재편과 전국 세력화를 목표로 '강연정치'에 나섰다.

천 의원은 지난 27일 대전을 시작으로 다음달 말까지 실시 예정인 전국 순회강연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지향점과 구상을 설파하며 세 규합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천 의원은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며 '물 밑 행보'에 치중해 왔으나 이제는 '제3지대' 건설을 위한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기로 한 것이다.

천 의원은 새정치연합이 좌편향이라는 인식 아래 '중용의 길'을 가기로 했다. 또 저성장, 불평등, 한반도 위기를 한 국가의 3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혁신경제·평등사회·평화국가를 지향점으로 삼았다.

천 의원은 무엇보다 신당 구상을 구체



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보궐선거 때만 해도 '뉴DJ(새로운 김대중)'를 내세우며 호남 중심의 신당 또는 선거연대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이

제는 전국적 개혁정당을 의지고 있다. 물론 천 의원은 무소속 연대에 그치지 않고 있다.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신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천 의원 측은 정계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시기를 9~10월께로 잡고 있다. 9월이면 새정치연합의 혁신안 확정과 맞물려 이태세력이 나올 공산이 크고 총선 일정까지 고려하면 이때가 적기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당명 바뀌나

손혜원 홍보위원장, 현재 브랜드 가치로는 '부정적'

새정치민주연합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28일 당명에 대해 브랜드적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며 쓴 소리를 던졌다.

홍보 전문가로 전격 영입된 이후, '셀프디스' 캠페인 등으로 눈길을 끌었던 손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 '새정치민주연합이란 당명이 브랜드 가치 면에서 긍정적이나'는 질문에 "아니다. 부정적"이라며 "전문가로서 (불 때) 좋은 이름

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이 읽기 불편하다는 건 마케팅 측면에서 보자면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어려운 이름은 알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는 바람에 계속적으로 (브랜드 가치) 누적되지 못한 게 참 안타깝다"며 "이름이라는 게 자주 바꾸면 원래 있었던 충성도 있는

팬들도 자주 실망하고 떨어져나간다"고 언급했다.

손 위원장은 당명 개정 문제에 대해선 "바꿀 것을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 있는 만큼 이름은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렵지만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야당의 뿌리를 찾기 위한 '창당 60주년 기념사업회'가 최근 출범한 데다 홍보위원회도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과 맞물려 당명 개정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지역감정 조장 발언 처벌"

소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를 어길 경우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몰도록 해 당선무효에 이를 수도 있도록 했다.

아울러 소위는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또는 왜곡사실을 보도할 경우 현

행보다 처벌 수위를 높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여론조사 공표 보도시 사전에 선거연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마도록했을 경우 기존의 처벌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어서 실제 부과되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지적을 감안, 이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1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이체 변경 고객 - 1장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추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과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쟁입회 하 추첨 예정)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유자리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자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

빛고을새마을금고